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오전 (2부) 7시 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2시
금요일예배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4년 2월 23일 (제 730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수련회에 임하는 자에게

후회 없는 수련회를 바라며 몇 마디 하련다. 먼저, 수련회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 수련회란 세미나 및 훈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말인즉 훈련과 놀러가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신년메시지 다시 읽어보라.

오늘이란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시간이다. 오늘부터다. 오늘 매사 최선을 다한 자 후회 없다.

난 평상시도 하루 2끼 먹고 산다. 왜냐고? 시간이 아까워서다. 나라면 이번 세미나에 하루 한 끼 먹고 배우는데 집중하겠다. 이번 기회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주님과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한 배고픔의 설움도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이 아닐까. 가장 큰 공부는 깨닫는 것일진대, 극기의 시간을 통해 감사를 알기만 해도 이번 세미나는 성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기에 가난과 무지와 무능이 따른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미래요, 우리 교회의 빛이고, 또 너희 부모님의 희망 아니냐? 때문에 시간을 배정해야 훈련이지, 놀이만 먹자판이 되면 안 되지. 시간의 중요성, 감사, 배움, 극기 훈련을 실천하는 자가 성공한다. 일생일대 명작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수련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생각 속에 상상력을 키워라. 지붕을 뚫고 예수를 만난 중풍병 친구 같은 발상의 전환, 창조적 생각을 하라. 옛 생각 가지고 성공과 기록은 썩 수 없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 미래가 환영하지 않고 발로 찬단다.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과 혁신운동이다. 입에 칼을 물고 마귀와 싸워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성공할 수 있어.

朋友 이초석

참으로 멋져부러~!

‘참으로 멋져부러~!’란 말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수련회였다. 몇 개월 기도하며 날씨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것이라고 했던가. 눈 폭탄이 쏟아지는 기상이면 속에서도 수련회장인 장성 기도원에는 눈발조차 날리지 않았고, 오히려 봄같이 따스한 날씨였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체험한 수련회였다. 이젠 오직 합심기도의 위력이었다. 참으로 하나님은 멋진 분이요.

기도의 맛을 체험한 우리는 순서 순서마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쳤다. 천여 명에 이르는 우리 예루살렘 젊은 영

니, ‘우리는 한 교회잖아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모님 세대에서 일구어 놓은 이 교단, 이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날, 현장에서 이 말을 들은 이시대 목사님은 크게 감동되셨다며, 설교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채 상기된 모습을 보여 주셨다. 참석자들 또한 이 기도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교단과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비전(Vision)을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시대 목사님은 이를 연속, 혼신의 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무정란이 부화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무조건 받아야 한다. 성령 받고 싶은 자들은 올라오라!”고 했더니, 단은 순식간에 성령을 사모하는 젊은이들로 가득 채워졌다.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져 나왔다. 그 동안 성령을 사모했던 젊은이들의 간증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약 7년 전부터 성령받기를 사모했었는데, 드디어 이번 수련회 때 새 방언이 터졌고 기도를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의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했어



2014 동계연합수련회 성령세례 광경

적 군사들의 역동적 훈련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고, 영·혼·육을 총족시키기에 충분한 특별한 집회였다.

사실 그동안 지교회들은 수련회에 매년 수동적으로 참여하는데 그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대전, 대구, 부산, 이 3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지교회가 연합하여 이번 동계수련회를 준비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서울과 인천교회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왔다. 한 찬양인도자의 고백이 인상적이었다. “연합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 지쳐있었습니다. 한 지체에게 일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

을 다해 설교하셨는데, 첫날 저녁집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이초석 목사님처럼,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바느질을 다하고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냥 풀려버리는 것과 같이 되지 않도록,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둘째 날 저녁에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세례’를 베풀어 주셨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시대 목사님의 성령세례식은 그야말로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유정란과 무정란은 겉보기에는 같은 달걀로 보이지만, 무정란의 경우 어미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생기지 않는다. 똑같이

요.”(고2, 이해민 학생). 이번 수련회는 마음의 벽을 깨고 연합으로 처음 시작한 것에 의미가 있고, 그 열매로 수도권과 지방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수련회라고 평가할 만하다. 교단을 통한 주님의 일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팔 걷어 부치고 뛰어드는 부모님 세대를 본받아서, 자녀 세대 또한 서로가 하나 되어 교단의 일을 돌아보는 복 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창훈

honny0116@gmail.com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젊은이들



포근한 날씨 가운데 진행된 야외행사



교단적 자원과 봉사로 기쁨이 넘쳤다



어둠속에서는 아군과 적군을 모른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1~13)

어느 신참 전도사가 가난한 탈동네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사는 다 쓰러질 것 같은 집의 대문을 두드리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에 집안에 있던 여인이 나타나면서 전도사에게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죽은 다음에 천국이 무슨 소용이요? 당장 꺼져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부자 되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병에서 낫는다는 것이고, 부도난 자에게 복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이것은 인류 최대의 복된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사면복권 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케 되었고(고후 8:9), 그가 제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필립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사 53:5).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병과 저주에서 다 놓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류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져 다치고, 악한 것들이 날뛰는 통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요12:46).

흑암과 혼동의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빛이 있으라’였습니

다. 지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첫째, 빛이 들어오니까 모든 것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넘어트린 것이 무엇인지, 내 것을 다 도둑질해간 것이 무엇인지, 왜 자빠졌는지, 나를 해치는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사9:2).

그 정체는 바로 마귀였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의 졸개인 귀신을 투입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일이 될 만하면 안 되었던 것도, 내 몸을 괴롭힌 것도 다 마귀의 추종자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데 빛이



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진멸하려고 오셨고

(요일3:8),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귀신을 내쫓으셨고, 부활승천 후에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주셔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게 하셨습니다.

둘째, 빛이 들어오니까 생명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1:4).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엄동철한데도 햇빛이 잘 드는 곳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러나 빛이 닿지 않는 곳, 그늘진 곳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벌레들만 우글거릴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취지 않는 곳에는 영원한 사망만 있었습니다. 귀신 소굴이었지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도 받았습니다(요1:12).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롬6:11).

셋째, 빛이 오니까 따뜻해졌습니다. 빛이 비추면 얼었던 것들이 녹아내리지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미움과 멸시와 정죄 대신에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속죄하셨으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요13:34),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눅6:37).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보지 못하기 때

문입니다.

그런 데

빛이

신

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닫힌 심령이 문제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커튼만 찢으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다

되고, 전기 스위치만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힘입어 쫓으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충전된 배터리를 끼운 마이크에 스위치를 넣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자들은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듯, 방아쇠를 당기면 총이 나가듯,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들어왔으면 몽둥이로 때려 죽여야지, 회의 하다가는 다 물려 죽을 뿐입니다.

그리고 늘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빛이 깨지는 순간 어둠은 바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둠은 다시 우리 심령에 찾아오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에서 즉시 마귀의 소굴로 바뀌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살전 5:19).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먼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2:9).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립 때는 물론,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도 변함없이 그 빛을 전파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새 생명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분이 당신 삶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눅1:78-79). 할렐루야!

장독 뚜껑을 열어놓지 않으면 비가 내려도 들어갈 수 없다

다(창1:3).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처럼 영적인 세계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완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에 물리적인 빛을 허락하신 것처럼, 영적인 세상에도 참 빛이신 예수를 허락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한전에서 전봇대 하나만 세워줘도 동네 주민 전체가 감사하다고 하는데, 참 빛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산입형명 이전까지 사람들은 어두운 밤에 햇빛, 호두기름 등잔, 화롯불 등을 의지했습니다. 1681년에 쓴 밤에 관한 글을 보면 ‘결핍하면 도시들은 불타고, 도둑질과 살인이 벌어진다. 밤이 되면 법이 맥을 못 추고 규칙이 달라졌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빛이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영적 빛이 없는 세상은 동일했습니다. 악한 것들이 날뛰고, 넘어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꿈과 열정이 복을 만듭니다

일본 규슈 지방의 돼지 치는 오두막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16살에 '인생을 불사를 만한 일에 이 한 몸 부처저라 빠져들고 싶다. 그 뭇가을 꼭 이루겠다'는 결심을 하고, 피 토하는 아버지와 흐느끼는 어머니를 뒤로한 채 낯선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났습니다. 식사시간마저도 책을 보는 등 목숨 걸고 공부하였고, 눈을 부릅뜨고 길을 찾다가 마침내 스물 셋에 인생의 꿈 '정보기술 혁명으로 인간을 행복하게!'를 찾았습다. 스물 넷, 장엄 첫날 과일 상자에 올라 달랑 두 명의 직원에게 원대한 꿈을 펼쳐보였습니다. 직원 둘은 다 겁먹고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2년 뒤 간질환으로 5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책 4,000권을 읽으면서 삶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30여 년 동안 위기와 실패, 고비와 도전이 이어졌지만, 처음 세운 '꿈'과 '인생 50년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뤄나갔습니다. 결국 일본의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을 일으키면서 한때 세계 1위 부자까지 올랐고, 160만 명의 트위터 팔로어를 거느리며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된 그는 일본 교포 3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단 한번 주어진 축복입니다. 삶의 목표를 가질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새로운 목표를 통해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꿈을 이루기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가치가 이끄는 삶을 꾸꾸는 것입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한 정보혁명사업을 추구한

손정의 회장의 꿈, 혹은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했던 링컨의 꿈, 전 세계인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자 세계 교구를 추구하는 이초석 목사의 꿈, 특히 우리를 구원하고자 온몸을 십자가에 바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꿈 등과 같이 나의 행복보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일정별/단계별로 수립하고, 주어진 환경에 최적의 방법으로 끈기 있고 강력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계획된 목표나 사업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탐욕스럽게 계속 파고드는 것은 기본이고, 장기적 목표는 무엇이며, 단기적 목표는 무엇인가, 그 목표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만 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올해의 목표는 무엇이며, 이 달의 내 개인적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공에서 배우는 것보다 실패 가운데서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으로 승승장구한 사람만 골라서 쓰지 않으시고, 실패한 사람,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사람도 뽑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계십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합니다. 죽어도 좋을 가치 있는 원대한 꿈을 꾸고, 식은 가슴이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데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관섭 장로

kwansup1029@hotmail.com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혼자 이 세상에 남겨두고 내가 어떻게 죽는단 말이냐?"

"아버지~ 아버지~"

마지막 면회시간이 다 되어 간수들에게 떠밀려 나가면서 울부짖는 소녀의 목소리가 한없이 애처로워 간수들의 가슴을 애어냈다. 소녀의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교수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소녀는 그 날 저녁에 종지기 노인을 찾아가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 새벽종을 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종을 치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아요. 할아버지,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네?"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매달려 슬피 울었다. 할아버지는 "애야,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만약 내가 종을 치지 않으면 나까지도 살아남을 수가 없단다." 하면서 할아버지도 함께 흐느끼 울었다.

마침내 다음 날 새벽이 밝아왔다. 종지기 노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종탑 밑으로 갔다. 그리고 종을 힘껏 당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무리 힘차게 종을 당겨보아도 종이 울리지 않았다. 있는 힘을 다해 다시 잡아당겨도 여전히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그러자 사형집행 대장이 급히 뛰어왔다.

"노인장, 시간이 다 되었는데 왜 종을 울리지 않나요? 마을 사람들이 저렇게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지 않소." 하고 독촉을 했다. 그러나 종지기 노인은 고개를 흔들며 "대장님, 글썽 아무리 종

을 당겨도 종이 안 울립니다.", "뭐요? 종이 안 울린다니, 그럴 리가 있나요." 대장은 자기가 직접 종을 힘껏 당겨봤다. 그러나 종은 여전히 울리지 않았다. "노인장, 어서 빨리 종탑 위로 올라가 봅시다."

두 사람은 계단을 밟아 급히 종탑 위로 올라가 왔다. 거기서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종의 추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소녀 하나가 매달려있었다. 소녀는 자기 몸으로 종이 부딪치지 않도록 막다가 죽은 것이다.

나라에서는 아버지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은 이 소녀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해 그 사형수 형벌을 면해줬다.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된 어린 딸의 시체를 부둥켜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이 소녀의 모습에서 우리를 살려
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To Be Succeed::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가?

바이올린계의 전설적인 명기(名器) 스트라디바리우스. 약 300여 년 전 제작되었으나 특유의 풍부하고 화려한 음색과 아름다운 색채로 오늘날까지도 명품 바이올린으로 꼽힌다. 그런데 '동양의 스트라디바리우스'라 불리는 바이올린계의 명장이 있으니, 그가 바로 재일동포 고(故) 진창현 씨다. 미국 바이올린 제작자협회에서 무감사 제작자로 인정받고 국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경연대회 6개 부문에서 5개 부문을 석권해 마스터메이커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세계 최고로 인정받게 된 이면에는 고난과 역경을 이긴 열정이 있다.

일제시대, 조선인이란 이유만으로 일본 바이올린 장인들에게 외면 받은 그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의 도면을 직접 구해 하루에 세 시간만 자며 홀로 제작하

는 길을 택했다. 그의 바이올린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놀랍게도 생사를 드나들게 했던 모진 고문의 경험이었다. 국내에서 간첩으로 오인 받아 극심한 고문을 받고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이겨낸 그는, 이전보다 더욱 왕성해진 호기심을 발판 삼아 재기에 성공했다. 최고의 소리와 아름다운 색채를 만들어 내겠다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석유 특유의 붉은 빛깔 추출 실험을 하다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바이올린에 개박자를 바르기도 했다. 그 특유의 열정은 그가 제작한 바이올린을 스트라디바리우스에 가장 근접한 명품으로 끌어올렸다. 하나 더, 남들과 차원이 다른 웅대한 소리와 모양을 만들어낸 원동력으로 그는 부단한 지식 연마와 연구를 들었다. 한 달에 삼만 엔 이상의 도

서비용을 지출하며 화학, 물리학, 수학, 미술, 수필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책을 읽는 습관은 세계에 다섯 명뿐인 무감사 장인의 반열에 '진창현'이라는 이름을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렇듯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강한 정신력과 남다른 열정, 그리고 부단한 노력으로 다져진 지식은 남들과 나를 구분지어 그 분야의 명장으로 거듭나게 한다.

신앙과 삶에 있어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끈질긴 정신력(잠24:16)과 뜨거운 열정(계3:16)을 먼저 소유하라.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 지식을 더하라(잠24:5-6). 세상과 영적 전쟁을 주도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얼마전에 전라남도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때 이와 관련하여 중책을 맡고 있던 한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과 연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고가 난 현장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를 입은 어민들과 사재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것도 모자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대책회의 자리에선 어민들보다 정유회사의 피해가 더 중요하다는 뉘앙스의 말을 꺼내는 등, 실의에 빠진 어민들의 가슴에 커다란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언행은 언론 매체들을 통해 집중 보도되었고, 인터넷 상에서는 그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론의 물결과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은 그는 취임한 지 1년도 못되어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도 이제는 다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밤낮 할 것 없이 우리의 언행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시대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말을 잘 해야 하고, 복 받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세상도 이렇게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며 그 언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머리끝까지 세시며 온 몸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복 받으려면 먼저 복 받을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됩니다.

신재식 전도사

blessedmb@naver.com

어느 청년의 편지

존경하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한 마음을 올립니다.

목사님께서 신년집회 때, 짧지만 힘 있게 그 동안의 위대임에서 저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선포해주시고 축복해주셔서, 16세 때부터 짊어지고 살았던 10년간의 멍에를 풀고, 제 앞날을 다시 설계하며, 새 길을 모색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부서뜨릴 수 있었기에 큰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도 싫고, 일도 싫고, 살기도 싫었던 마음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아침에 눈을 뜨면 뭘가 해내는 사람이 되고, 어머니께도 이전 더 좋은 아들이 되어 효과하고 힘이 되는 아들이 되고 싶고, 평생을 지금까지 가루에서 심한 예수쟁이로 낙인 찍혀 눈물의 기도도 살아온 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릴 줄 아는 아들이 되고 싶은 제가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신년집회 다녀온 이후의 저의 마음들은 저도 알 수 없는 곳으로 인도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라고 생각하며 저희 어머니도 그리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말 큰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은 시작이 미약하지만요. 이전 아르바이트도 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운동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목회자의 길은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서 목사님 말씀대로 어디서든 머리가 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요즘의 저를 보며 어머니는 너무 행복해 하시지요. 별다른게 효과하는 것도 없는데 저만 보면 감사하고 행복하다 하시네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전 처음 보는 저를 보았던 사람처럼 사랑으로 대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부모님의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하여서 저까지도 더 의기소침 했었는데, 요즘은 어머니가 더 힘을 얻어서 전 세계로 사시는 걸 보면 왜 그동안 저런 기도의 어머니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 하는 회개도 합니다.

어머니는 열심히 사업에 전신을 다해서 그전처럼 다시 교회도 세우고, 성경 없는 후진국에 성경도 다시 보내주고, 목사님 중보기도자로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실 때마다 기도터에서 전 세계에 기도를 뿌리실 거라고 하십니다. 지금의 제가 저의 본 모습인 것처럼, 달라진 저를 보고 제 어머니도 본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어머니와 저 또한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 때마다 “우리 부활할 거야.” 라고 저에게 늘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머니가 어이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지금은 정말 제가 부활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부활했고, 제 마음이 부활했고, 이전 뭘가 ‘이게 시작이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저는 남자이든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중 목사님들은 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2주전엔가 어머니가 수요예배를 다녀오신 뒤에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장성기도원을 세우실 때 기도원 허가가 나지 않아서 장로님 한 분이 담장 높은 큰집에 두 달인가 가셔서 고생하셨다고요. 그 장로님을 생각하며 그의 가족들을 지금도 목사님이 잘 챙기시며 사신다고요. 오랫동안 목사님을 겪은 저는 아니지만, 그 얘기 한 마디만으로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의리 있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27세가 되도록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음의 의리 지키는 사람은 딱 두 분 봤습니다. 그 중 한 분이 이초석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교회 세우는 일에 몇 번씩 전 재산 다 내놓고 허리띠 졸라매고 앞장서 교회 세우다가 담장 높은 큰집에서 함묵하고 2년 9개월을 사셨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지만 그런 어머니가 병들어서 나오셨는데 자랑 어떤 동생은 버려진 채였고, 병든 어머니에게서 모두 등 돌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며 괜챦아 하는 어머니도 사실 죽도록 믿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만 보며 홀로 사는 엄마를 그런 지경까지 되도록 몰라라 하고 자신들의 밤그릇만 챙기는데 혈안이 된 목사님들의 모습을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 되돌아보면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의 아들이고 싶습니다.

다. 이런 마음 불편한 세상에 살면서 목사님처럼 온유한 자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포장 잘 된 까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살만한 가치가 없는 세상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엔 진짜가 있기에 살만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소수의 진짜가 더 빛이 나지요.

저희 어머니는 아파도 아프다고 안합니다. 슬퍼도 슬프다고 안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골방에서 기도하시면 한 없이 울며 사시는 제 어머니의 통곡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이제부터는 골방에서 어머니처럼 저도 울가 합니다. 그러면 제 어머니가 위로 받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88체육관에서 주일예배 드리고 오시면 은혜 받고 환해진 어머니 얼굴을 봅니다. 제 어머니라 그런지 참 예쁘고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진작로 감사합니다. 진짜 목사님이 계시기에 제 어머니가 요즘 살맛나는 것 아닌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진짜 부재의 이 세상에 진장을 많이 나누주세요. 그래야 저희 어머니처럼 외골수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그 래도 살아갈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라는 분을 존경해보기는 처음입니다.

목사님 오래오래 사세요. 존경합니다.

주님 아들이 이초석 목사님께 이 편지를 올립니다.

::정춘, 그 아름다운 이름::

내 장점을 키우자고요

우스갯소리로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선 국영수를 잘 해야 사랑 받고, 사회에선 예능능을 잘해야 사랑 받는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직장에서의 인기비결은 희식 때 썰렁한 분위기를 제치거나 피우는 엔터테이너 기질이나 동네 노래방을 한 순간 슈퍼스타처럼 만들어버리는 노래 실력, 야유회에서 빅토르 안 선수마냥 뒤쳐진 우리 팀을 1등을 만드는 운동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인기는 때론 외 사람에게 인정받는 지름길이 되곤 합니다.

워낙 타고난 음치라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걸 별 서는 것보다 싫어했던 저로서는 신입생 때나 신입사원 때마다 거쳐 가야 하는 술자리, 노래방 코스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불려도 진창 마저서 정신줄을 확 놓아버리면 좋으련만, 술 한 모금 안 마신 100% 맨 정신으로 버텨야 하는 그 시간들은 고문이 따로 없었지요. 앞에서 잘 노는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속으로 엄청 부러워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 번은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혼자

노래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18번이라도 만들어 놔야겠다 싶어서요. 아는 가요를 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제 모습이 기록해 보아기는커녕 엄청 초라해 보였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회의감이 들어 노래방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을 열고 나와 버렸지요.

그 때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분위기를 잘 띄우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토익이나 컴퓨터 자격증과 같이 사회생활에 있어 무척 중요하고 꼭 필요한 능력 중 하나라는 것일요. 그리고 그 하나를 저는 가지지 못했다는 것일요. 하지만 그 하나가 없다고 좌절하거나 그것을 가지려고 억지로 괴로워하면서 노력하는 대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를 더 크게 키워나가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평소 엉덩이가 무거워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꼼짝 않고 몇 시간씩 집중하곤 하는데요. 어떤 일이건 체계 들어오면 무거운 엉덩이로,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요. 전 그게 회

식보다 노래방보다 몇 백배나 즐거웠습니다. 그 결과랄까요, 한번은 제 연차에선 받을 수 없는 최상의 인사과가를, 매번 남들보다 더 많은 보너스를 받았지요. 회사사람에게 사랑 받은 건 물론이고요.

흔히들 ‘호박에 즐긔는다고 수박 되나’라고 말하지요. 반대로 수박을 꿇인다고 맛있는 호박죽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호박은 호박의 맛을, 수박은 수박의 맛을 키우고 높일 때 빛이 나는 것이지요.故스타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 남의 인생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감을 따를 용기를 갖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토기장이 하나님에 만든 최고의 작품이지요. 남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을 갖고 뒤를 때, 우리 인생은 더욱더 빛이 날 것입니다. 아주 멋진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딤후2:20).

신은혜

dopal0203@naver.com

